

품질 보증으로 먹거리 안전성 ↑

제도권 밖 위기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안전성 확인된 제품에 인증마크·번호 부여

‘맛의 도시’ 전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와 번호가 부여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농산물과 임산물, 가공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해주는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한 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눠 총 320개에 달하는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작물 생산 시기에 맞춰 품질인증 신청을 받고 있

다. 인증대상 품목은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가공품 등이다. 인증 기준은 농산물과 임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여야 하며, 가공품의 경우 전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임산물이 50%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현장심사를 하고, 시료채취 및 안전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품질인증 참여 농가의 분석수수료를 지원해 전주푸드 인증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산물 출하 10일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의뢰할 때 무료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생산관리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통 중인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횡수에 따라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농가가 농산물에 전주시 안전농·특산물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부착해 출하하면 전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주 전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주푸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품질인증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130세대 대상 ‘완산 복지플래너 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가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존재, 차량 보유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도움을 손길이 절실한 위기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완산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10% 초과된 위기가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서비스 신청대상이 된 130세대를 대상으로 ‘완산 복지플래너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례로 노인일자리와 폐지 줍는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맞춤형 급여 신청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부적합 결정됐으나,

완산 복지플래너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매월 21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사업 연계, 각종 돌봄서비스, 이웃돕기 지원 등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데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복지지원,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공공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된 ‘완산 복지플래너 사업’은 그간 제도

권 밖 위기가정 480세대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향후에도 구는 가족 해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지원을 하고, 휴·폐업 등으로 위기가정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계숙 구청장은 “‘완산 복지플래너 사업’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어 제도권 밖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꿀 수 있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어려운 환경 아동 안전하고 원활한 학업 이어나가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 세이브더칠드런 제안으로 3500만원 상당 노트북·열화상카메라 후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조위원장 주인구) 노사는 11일 전주시청을 찾아 3,500만원 상당의 학습용 노트북 14대와 열화상카메라 11대를 기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제안해 이뤄진 이날 기탁식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학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후원된 학습용 노트북과 열화상카메라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25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 관계자는 “노트북과 열화상카메라가 전주지역 내 아동기관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11일 전주시청을 찾아 3500만원 상당의 학습용 노트북 14대와 열화상카메라 11대를 기탁했다.

전주공장 노사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학습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정훈 현대자

동차 전주공장장과 강영호 현대자동차 전주노조위원회 사무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노선덕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 인문학 콘서트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인문학 강좌는 명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인간의 삶과 문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열린다. 강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인원

을 50명으로 제한하고,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된다.

13일 열리는 첫 강연에서는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이 초청돼 ‘생태적 문명: 인류의 마지막 과제’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며, 20일에는 차은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스트휴머니즘과 생

명의 기호학’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27일에는 조성환, 박경철, 한운정, 김재익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가계)’ 공동저자와 함께 ‘우리 공동의 미래, 생태문명’을 주제로 어떻게 생태문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강연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367)으로 문의하거나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바로운’ 마을버스 실시간 위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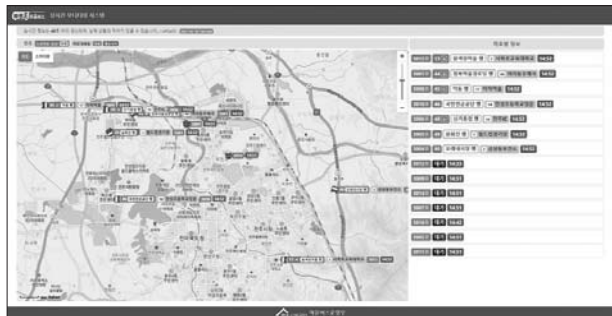
전주시설공단, 전국 공기업 최초 자체 마을버스 운행 안내 시스템 구축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전국 공기업 최초로 자체 마을버스 운행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이 구축한 마을버스 운행 안내 시스템은 공단 마을버스운영부 조현진 주임이 개인적으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실시간(40초 단위)으로 표시해 이용객들에게 알려준다.

마을버스 등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웹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선번호와 정류장 이름 등 단편적인 운행정보를 문자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류장별 도착시간, 평균 운행 시간 등 실시간 운행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어 버스 배차시간이나 노선 개편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자체 개발로 5,000만원 이상의 시스템 개발비를 절감한 조현진 주임은 공단에 입사하기 전 전주대중교통협의회와 전주시 지방대중교통 계획 검토위원회, 전주시내버스는



바로운 마을버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모습.

이 때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차량 대부분이 친환경 전기버스로 생태교통도시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순기 이사장은 “마을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정류장 도착시간을 예상할 수 있어 시민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과 친절을 모토로 삼아 전주시민의 빠르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로운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4대의 차량으로 20개 노선을 운행하며 하루 평균 시민 1,100명의 발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